

대한방직 터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 확인

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와 공존하는 개발사업 전환해야" 서식지 원형 보전 촉구

대한방직 터 맹꽁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틀에 걸쳐 비가 내린 30일 저녁, 대한방직 터 가립관 울타리 구간 청음 조사를 통해 마전로 KBS와 경찰청 맞은편 구간 등 4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방직터 맹꽁이 출현지점

따라서, 옛 대한방직 맹꽁이 보호 대책에 부지 내 원형보전 방안을 추가하고, 부지 내 자연녹지나 공원 부지(11,470㎡), 혹은 전체 부지의 40%나 차지한다는 공개공지(81,798㎡)에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주)자공이 추진한 맹꽁이 포획 및 방사 허가 과정에서 △ 국립생태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가 없었고 △ 첫 산란기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 부지 내 원형 보전

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지 내 서식지 원형 보전,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맹꽁이 보호 대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서식지 내 원형보전 △사업장 인근 대체서식지 조성, △포획 후 다른 곳으로 이주 등의 보호 대책 중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획 후 이주로 결정이 나야 한다. 사업 시행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식지 외부 대체 서식지로 이주한 맹꽁이의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주)자공이 최초 이주 대상지로 정했던 삼천 생태 학습장도 2021년 맹꽁이 230여 마리를 방사했으나, 22년 사

후모니터링 보고서에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임시 보호를 하고 복원지에 방사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하천 부지라는 특성과 정비 사업 후 조성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맹꽁이 보호 대책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도시 근린공원이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본격적인 장맛비를 앞둔 상황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과 전주시가 산란기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개체 수 및 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부지 내 원형보전 및 부지 내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면서 맹꽁이와 공존하는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김욱기 기자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전주시, 6~7일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서 개최

전주시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2024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를 개최한다. '전주책페어'는 '걸어다니는 서점'이라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 책을 팔던 조선시대 서적중개상 '책패'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지난해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 처음 열린 전주책페어는 7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전국의 독립출판인 65팀의 신작을 만나고, 관련 강연과 체험, 이벤트 등을 경험한 바 있다. 2회째를 맞은 전주책페어는 과거 원예공관장이었던 공간에서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돼 올해 개관한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독립출판인들에게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독립출판 책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이번 전주책페어에는 지난해 65팀보다 24팀이 늘어난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립출판사, 독립책방 등 총 89팀이 참가한다. 또한 참가 지역도 전북을 비롯해 서울·대전·부산·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중인 독립출판인들이 참여하게 되며, 강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강연의 경우 △민희 강연대 국어교육학과 교수의 '책패 열전, 그들이 꿈꾸던 책 세상 이야기' (6일 오후 2시) △누구나 작가의 '독립출판으로 요모조모 살아남기' (6일 오후 5시) △김광철 프로파간다 대표의 '사랑과 혁명:여기는 군산' (7일 오후 1시) △에바&다미안 스페인책방 대표의 '나만의 색깔로 책방을 칠한다' (7일 오후 3시)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문화공관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나만의 책을 위한 질문엽서에 답을 쓰는 '책이 되는 책패 나무' △웃음이·제기차기·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도깨비를 이겨라!' △책패 북장을 해볼 수 있는 '책패상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책페어를 통해 전주의 융성된 출판문화 역사와 동시대 독립출판의 현주소를 견지하고, 독립출판인을 발굴·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북페어가 독립출판을 꿈꾸는 예비출판인들에게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신바람 나는 복지도시 전주 만든다

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전주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민·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제10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복지기관 대표와 학계, 당연직 공무원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향후 2

년간 각 분야를 대표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승재 전주시 사회복지사업국장(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장)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공동위원장이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게 됐다.



전주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민·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이 풍요로운 신바람 나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

위해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10기 대표협의체와 위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여름 장마철 수해 예방 총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여름 장마철을 맞아 수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공단은 시설물과 차량 등 공단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에 나선 것. 주차장을 포함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27개 시설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점검 및 퇴적물 제거 △배수관의 파손 및 누수 확인 △배수펌프 등 침수 복구 정비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 이차콜 택시와 마을버스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93대를 대상으로 타이어와 와이퍼 등 정비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공단은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 운행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우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등 호우 특보가 발효됐을 때 언더패스 또는 상습 침수 구간을 피해 운행함으로써 승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다.

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운행 매뉴얼이다. 공단은 각 시설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장마철을 맞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제도 안내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은 올해 상반기 의료급여를 취득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상반기 신규 대상자는 약 292세대 416명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된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선택병원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현금급여 지원제도(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의료급여 제한사유 등 대상자가 의료급여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상자별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 및 동영상교육, 유선안내 등을 실시 하였고 복지부에서 지정된 집중관리대상은 개별방문 등 밀착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한편 완산구는 6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의료 이용법, 올바른 약물관리 복용 등을 안내하고 장기입원자들의 퇴원연계, 지역사회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재가의료사업등을 활성화시켜 지역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KRC-함께라면' 나눔 캠페인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2일 오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함께라면' 나눔캠페인을 실시했다. 김관영 도시사, 우범기 전주시장에 이어 3호 기부자로 이정문 본부장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본부장과 전북본부 직원들이 1000여개 라면을 기부했으며, 이렇게 모인 라면은 '전주 함께라면'을 함께 추진하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조성된 'KRC-함께라면' 공간에 기부되었다. 한편, '함께라면'은 라면을 매개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공유



공간을 마련하고, '누구나 먹고 가고, 누구나 놓고 가는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